

3월 개막 물 건너간 K리그, 4월에는 가능?

'깊은 고민' 프로연맹, 4월 개막 전제로 방안 마련 리그 축소·12월 중순까지 경기 등 대책 시뮬레이션

"3월 개막이 어려운 만큼 4월 개막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프로축구 K리그는 언제 개막할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개막 일정' 마련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 시즌 프로축구는 2월 29일 막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달 24일 개막 '잠정 연기'를 결정했고, 새로운 개막 일정을 잡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10일 "3월 K리그 개막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라며

"4월 개막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월까지 개막이 어려우면 사실상 K리그는 38라운드(정규리그 33라운드+스플릿 5라운드) 일정 소화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K리그는 12개 팀이 33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른 뒤 파이널A(1~6위)와 파이널B(7~12위)로 나뉘는 스플릿 라운드(5라운드)를 통해 우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개막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38라운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프로연맹은 38라운드 일정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K리그 개막 마지노선을 4월로 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4월에도 개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프로연맹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그 일정 축소다. 우선 정규리그를 33라운드까지만 치른 뒤 스플릿 라운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러면 팀별로 홈 경기 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홈경기를 2경기 또는 1경기만 치르는 팀이 생겨 입장 수입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방안은 22라운드까지 치르고 난 뒤 파이널A와 파이널B로 나뉘며 팀별로 홈경기의 수가 똑같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파이널 시리즈 일정이 길어지면 경기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단점이 따른다.

마지막 방안은 38라운드를 기존대로 고수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12월 초에 끝나야 하는 리그 일정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감수해

야 한다. '한겨울 축구'를 진행하는 건 물론이고 6월 및 9월 A매치 기간에도 정규리그 경기를 치러야 해 주중 정규리그 경기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A매치에 대표선수를 많이 차출하는 팀들이 불리하다는 단점도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서 정규리그를 개막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할 문제가 많다. 경기장 대관을 지자체에서 허락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관중 경기도 감수해야만 한다.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해도 관중거리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고, 취재진은 물론 팬들과 선수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통신 관리도 필요하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어떤 예상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시뮬레이션해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스틴 벌랜더, 크리스 세일, 루이스 세베리노.

시즌 개막 강행 MLB, 각 팀 에이스 줄부상

벌랜더·세일·세베리노 부상 셔저 허리통증... 피로누적

미국프로야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시즌 개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팀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시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막전에 등판해야 할 에이스들이 줄줄이 부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인 홈치기'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간판 에이스이자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저스틴 벌랜더(37)가 최근 삼두근 부상을 당했다.

지난 9일 뉴욕 메츠와의 시범경기에서 예정보다 짧은 2이닝만 던지고 내려온 벌랜더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당분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휴스턴을 꺾고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른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 맥스 셔저(35)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셔저는 11일(이하 한국시간) 마이애미 말린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 예정이었지만 옆구리 통증으로

취소했다. 셔저는 현지 인터뷰에서 "큰 부상이 아니라 단순 피로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겨울 투수 역사상 최고액인 9년간 3억2400만 달러에 계약된 폴(29)을 영입한 양키스는 올 시즌 '원투 펀치'로 활약을 기대했던 우완 루이스 세베리노(26)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시즌 아웃됐다.

'양키스는 또 지난해 에이스 역할을 했던 좌완 제임스 팩스턴(31)도 허리 부상으로 5월쯤 돌아올 예정이다.

보스턴은 좌완 에이스 크리스 세일(31)이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상태에서 시즌을 맞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세일은 최근 검진 결과 인대접합 수술은 피했지만 주사 시술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 재활을 해야 한다.

메이저리그는 10일 30개 구단과 컨퍼런스 콜을 열고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에도 올 시즌을 예정대로 시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각 팀 에이스들이 예상치 못한 줄 부상을 당해 개막전 분위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날 뛰여넘고 가라 이탈리아의 로빈 고겐스(위)와 발렌시아의 다니엘 바스가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중 볼을 다루고 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이탈리아가 발렌시아를 4-3으로 승리했다.

유럽축구 옥죄는 코로나19 리그중단·연기·무관중 경기

코로나19가 유럽축구를 옥죄고 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는 다음 달 3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리그를 전면 중단했고, 스페인 프로축구 1·2부 리그는 10일부터 최소 2주 동안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한 가운데 클럽팀 관계자 중에서 확진 환자까지 나왔다.

그리스 1부리그 올림피아코스과 잉글랜드 2부리그 노팅엄 포리스트의 구단주인 그리스의 부호 에반젤로스 마리아키스(53)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리그는 비상이 걸렸다.

마리아키스 구단주는 지난 7일 노팅엄에서 열린 노팅엄-밀월의 챔피언십 경기를 관전했다. 또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에서 올림피아코스-아스널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경기도 관전했다. 그는 경기 후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아스널 구단 직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널은 선수 몇 명이 마리아키스 구단주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는 연기됐다.

도쿄행 여자복싱 오연지 '나홀로' 결승

임애지는 준결승서 판정패

한국 여자복싱의 간판 오연지(30·울산광역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했다.

오연지는 10일(한국시간) 요르단

아만에서 열린 대회 여자 라이트급(60kg) 준결승에서 태국의 수다포르 사순디에게 5-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오연지는 준결승 진출만으로도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동계급 상위 4명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

을 손에 넣었다. 오연지는 1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시몬디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번 지역 예선에 참여한 한국 대표팀 13명 중 유일하게 결승 무대에 올랐다.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얻어낸 막내 임애지(21·한국체대)는 여자 페더급 준결승에서 일본의 이리에 세나에게 0-5 판정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류현진 2020시즌 개막 직전 랭킹 94위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메이저리그 전문가 투표로 정한 '2020시즌 개막 직전 랭킹'에서 94위에 올랐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1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담당 기자, 분석가, 해설자 등 전문가 40명의 투표로 랭킹을 정했다"며 순위를 공개했다.

한국 선수 중에 100위 안에 든 선수는 류현진뿐이었다.

ESPN은 "류현진은 지난해 142% 이닝을 던질 때까지 평균자책점 1.45, 17볼넷, 10피홈런 등 역사적인 기록을 이어갔다. 일시적인 부진이



있었지만,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2.32로 이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019년 류현진의 활약을 떠올렸다.

이어 "류현진은 지난 7년(2013~2019년) 동안 10번이나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IL에 머문 시간은 단 21일이었다.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2013년 이후 가장 짧게 IL에 머문 해였다"고 류현진의 무척 건강하게 한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프레스트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뉴스특보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행이 모인다	7:30 뿌로로와 노래해요 8:00 딤뎡뎡 유치원 9:30 다들뎡뎡 뎡뎡이 10:00 특집 다투복장 0.1%의 비밀 13:55 발견의 기쁨 동태책방 15:25 트리플루 15:55 슈퍼공룡파워 16:10 예술아 놀자 16:40 딤뎡뎡 친구들 17:20 워너지 뮤직박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나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능방송센터(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5:00 공사장리뷰 다큐 인사이트(재) 15:55 슈퍼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2: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차부품왕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시노스틀 프리임 17:30 주간연세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3:20 꾸러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재)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25 사색의 공동체 스키마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전국 TOP10 가요소(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7:30 김현철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키친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영경의 가톨릭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공사장리뷰 KBS 뉴스 9 22:00 공사장리뷰 다큐 인사이트 22:5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00 더 라이브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프레스트 23:10 해피투게더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1:30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2:05 특집 VR유연다큐 너를 만났다 22:35 특집 VR유연다큐 세상에 이런일이 1부 너를 만났다 22:40 맛남의 광장 2부 23:05 4.15 총선 특집 제주MBC 시사전단	18:00 행복실제 알짜배기 19:00 제주를 말한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맛남의 광장 1부 22:40 맛남의 광장 2부 23:10 맛남의 광장 3부 23:40 접수! 무비월드 스페셜	7:00 KCTV 뉴스 8:30 취미로 먹고 산다 10:30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자 12:40 배워봐서 관광중국어 13:10 마이펫 공감해요 시즌2 14:30 취미로 먹고 산다 17:00 KCTV 뉴스 17:10 판타스틱 특급무비 18:00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자 20:00 다시보는삼다공원콘서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2월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사학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형제간 금전문제 또는 재산으로 인한 다툼, 불화가 생길 수 있다. 48년 할 일이 배가 되어 즐거우나 무리함이 우려되니 여유있게 처리. 60년 집문서 변화 또는 현 직업에 변화가 온다. 72년 직장인은 휴먼이 오고 인정을 받는다. 85년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잘 지속하라.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 온다.

42년 너무 신중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단은 과감한 게 좋다. 54년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갈곳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 67년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헤드리본 좋아한다.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생긴다. 91년 목표를 정해 충실하면 자신감과 더불어 이익 증가.

37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해도 좋다. 49년 바쁠수록 신중하게 활동하라. 서두르면 문제 발생. 61년 전문지 또는 창업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는다. 73년 취직과 관련된 것은 길. 이성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85년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잘 지속하라.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 온다.

43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을 발동하지 마라. 55년 갈 곳이 많고 재물이 많다. 69년 물이 흐르듯 마음이나 타지않아도 여행 또는 출장 갈 일이 생긴다. 80년 동료 또는 윗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게 좋다. 92년 일이 필요 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38년 안고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존경 받는다. 50년 어머니나 사위의 갑작스런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성관계 불륜 구설수 주의. 62년 자녀진로로 고민. 부모는 여러 자료 준비로 분주하다. 74년 자신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이 행동시 윗사람이 칭찬을 한다. 86년 하는 일에 호전되니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44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라. 56년 벌과금 또는 생각이 없는 재물지출이 생기니 차량 운전 시 조심. 68년 외출이나 타지않아도 여행 또는 출장 갈 일이 생긴다. 80년 동료 또는 윗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게 좋다. 92년 일이 필요 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39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시 분실 조심할 것. 51년 인간관계에서 배신 배반 또는 문상할 일 발생하게 된다. 63년 중재이나 책임을 다 할 일이 주어지고 늦게까지 바쁘다. 75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87년 취직 또는 이성교제가 진행된다.

45년 답답하고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57년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69년 물이 흐르듯 마음이나 타지않아도 여행 또는 출장 갈 일이 생긴다. 80년 동료 또는 윗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게 좋다. 92년 일이 필요 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0년 감성을 상대는 참견이라 보니 시비조심. 운전조심. 52년 문서를 계약문이 길고 번복운도 원만. 집안보다 외부 활동이 더 중요하다. 64년 재물 손재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 보습 설정하는 금지. 76년 이 사 등의 문제가 분주.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에 길. 88년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니 윗사람의 칭찬 있다.

41년 기회는 만드는 법.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하고자 하는 일 추진하라. 53년 일이 생기고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65년 모친에게는 안부전화. 운전조심. 77년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거나 논쟁은 나를 옹호하게 만든다. 89년 목격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하여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함.

46년 귀인 도움으로 나의 능력이 배가 되고 바쁘다. 움직이면 복이 온다. 58년 직접투자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70년 한가지 뜻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하라. 결과가 있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명예 또는 이익 발생. 94년 신뢰한 만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47년 시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59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이익이 증가된다. 71년 과정을 지나 결과물을 취득하는 때. 자차출생. 이성교제 길. 83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95년 나의 따스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때로 시킨다.